

행복한 금요 편지

결혼을 앞둔 딸에게 보내는 편지

천두영¹⁾

한선재단 기획홍보위원

사랑하는 딸 소연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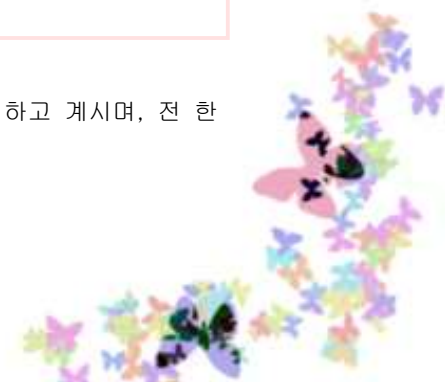
먼저 결혼을 코앞에 둔 너에게 편지를 쓰기 전에 아빠가 보관하고 있는 너의 어릴 적 사진앨범과 화첩 등을 보면서 네가 태어나면서 부터 지금까지 일들이 한 편의 드라마처럼 회상이 되는구나. 꼭 35년 전 6월 네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를 지금 생각해보니 아빠가 철이 없어서 너를 크게 예뻐할 줄도 사랑하는 방법도 몰랐던 것 같다.

모든 면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너는 유치원을 거쳐 초등학교에 다니며 예쁘게도 잘 자라주었다. 중학교에 입학할 때는 배치고사에서 네가 수석 합격하여 입학식에서 신입생 대표선서를 하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구나. 모든 면에서 모범생인 너는 노래와 춤을 좋아했고 책을 가까이 했으며 이해심이 많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자랑스럽고 사랑스런 딸이었다. 그런 네가 2005년 서울대 졸업과 동시에 산업공학 명문인 미국 조지아 공대 석·박사과정을 떠났고, 지금은 워싱턴 D.C.에 있는 조지타운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아빠로서는 너에게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라는 말 밖에 할 말이 없구나.

이제 너는 한 달 후면 결혼을 하게 되는구나. 결혼은 예로부터 "건곤지덕합(乾坤之德合)"이라 했다. 남자와 여자가 덕으로 하나가 된다는 뜻이다. 즉 남자와 여자, 즉 하늘과 땅이 잘 조화를 이뤄야 천지만물이 소생하고 번창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단다. 물론 너도 이제 성인이고 지식과 지혜가 깊은 줄은 안다만 그래도 인생의 선배인 아빠로서 노파심에서 너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하고자 한다.

1) 행복편지를 기고해 주신 천두영 위원님은 현재 주식회사 청유 상임고문을 직임하고 계시며, 전 한 국야쿠르트에서 근무하셨습니다.



첫째, 건강해야한다.

건강은 행복한 삶을 살기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이다. 건강은 육체적 건강은 물론이고, 정신적 건강도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섭생(攝生)', '적당한 운동(運動)', '충분한 휴식(休息)' 이 세 가지를 명심하기 바란다. 건강의 키워드는 '균형(balance)' 이다.

둘째, 사랑이다.

너희 부부간의 사랑은 가정의 평화를 가져오는 핵심요소이다.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얼마나 잘 살아가고 있는가를 진단할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하다. 아빠는 사랑을 이야기 할 때 네 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 인정(recognize) : 상대를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봐주는 일이다.
- 존경(respect) : 사랑하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경외심(敬畏心)을 갖는 일이다. 하지만 네가 먼저 너 자신을 존중하기 전에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 책임(responsibility) : 여기에서의 책임은 사랑하는 사람과 형성된 공동체에 대해 책임을 갖는 것을 말한다. 서로 의지하고 양보하고 베품에 대한 생각들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 신뢰(trust) : '신뢰의 힘'은 사랑의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데 큰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상대를 완전히 신뢰할 때만이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경제적 자유이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경제적 힘을 갖는다는 것은 인생의 중요한 목표이자 책임이기도 하다. 진정한 부는 돈이나 소유한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자기 방식대로 살 수 있는 충분한 수단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이다. 또한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창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유와 안전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넷째, 풍요로운 행복이다.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가 중요하다. 마음의 평화는 우리가 가치관과 신념에 일치되는 삶이 균형을 유지할 때 마음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삶의 상위목표이며 건강, 사랑, 부와 더불어 인생의 핵심원칙이어야 한다.

사랑하는 딸 소연아!

아빠는 늘 그랬듯이 너의 선택을 존중해왔고 너에 대한 무한한 신뢰 또한 변함이 없다. 너와 백년해로 할 Dan도 심성이 좋고 훌륭한 젊은이라고 생각한다. 너와 댄이 인생의 참된 동반자(同伴者)가 되기 위해서는 삶에 대한 가치관을 공유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는 마음가짐을 먼저 가져야한다.

생텍쥐페리가 "사랑은 서로의 눈을 응시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방향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듯이... 너희들이 참된 사랑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아빠는 진심으로 바란다.

고맙다. 그리고 사랑한다. 훌륭한 우리 딸 소연!

한선행복포럼에서는 '행복한 금요편지'이란 에세이를 통해 행복의 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당신의 소중한 편지를 기다리겠습니다. 행복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